의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인 이들이 공공 공간 안팎에서 생존을 위한 공동의 싸움을 벌이는 사이 공간들을 보여줌으로써,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 전유의 방식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쓰레기 공동체: 가장 공공적인 공동체

‘소수자 공간’은 이들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즉 다수자와의 차이가 반영되는 공간일 것이다. 이 ‘차이의 공간’으로서의 ‘소수자 공간’은 다수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에서 떨어져 나온 공간으로, 사회의 지배적인 질서를 교란시키는 공간이다. 이 소수자 공간은 기존의 인권과 평등권, 휴머니즘과 문화적 상대주의를 내세우는 공동체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논의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차별화된다. 즉 공사의 이분법을 유지하면서 공적인 것(공공 공간)과 사적인 것(사적 공간) 사이에서 어느 것을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이 이분법 자체를 의문에 부치며 해체하는 것, 시민사회의 규준에 도전하는 것, 사회의 정상 규범과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주목하기보다는 일상공간에서 비제도적인 정체성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다.[30]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홈리스들은 단순히 계급이나 성, 인종 등의 근대의 카테고리로는 묶이지 않는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수많은 내적 차이들을 하나의 통일성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생산해낸다. 네그리와 하트는 봉건시대의 ‘공유지’를 뜻하는 the commons라는 말과의 연속성을 살리면서도 다중의 공통성이 갖는 독특함

30) 박경환,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6-4, 2008, p. 305.

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의 마지막 s를 빼고 the common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공통된 것이란 생산되는 것이고, 사람들 간의 소통, 협동, 협력은 바로 이 공통된 것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하는 관계 속에서 공통된 것을 생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홈리스 공동체에서 '공통적인 것'의 구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홈리스들은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의 공통된 성격(공공 공간으로부터의 배제와 추방, 자기 '집'에서 거주할 권리의 박탈 등)에 의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태들에 의해 통일된다. 이들은 공공 공간이 점차 사유화 되고 더욱 더 정상화 되어 가는 경향 속에서, 즉 전지구적인 배제와 추방의 공통 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31]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이 공통적인 것 속에서 인식하면서 또한 자신의 특이성의 권리를 표현하고, 정상 규범과 척도에 맞서 과잉과 위반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네그리는 다중을 '괴물스러움'으로 표현한다.

미야시타 공원의 당사자들을 면담하면서 이들의 공생형 거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전홍규는 공원 내 홈리스들의 삶이 공원으로의 이주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식생활을 해결하고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많은 경우 공동 재정주와 공동체 형성, 공동 자립 등을 희망하는데, 2001년에는 미야시타 공원 홈리스들로 구성된 자치회가 발족되기도 했다.[32] 물론 이들이 대단히 '의식적으로' 공통된 것을 만들어내고, '의식적으로' 네트워

31)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조정환 · 장남영 옮김, 『다중』, 세종서적, 2008, pp. 234-256; 안또니오 네그리 지음, 서창현 옮김, 『네그리의 제국 강의』, 갈무리, 2011, pp. 90-94.

32) 전홍규, 「홈리스 커뮤니티의 공생형 거주에 관한 연구 - 시부야구 미야시타 공원의 당사자 참가형 조사를 중심으로 -」, 『도시와 빈곤』 59, 한국도시연구소, 2002, pp. 8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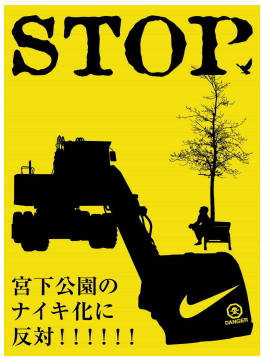
크를 이루며, '의식적으로' 다수자 중심의 공공성 개념에 저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적 존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정상적인 공공 공간'에 하나의 균열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홈리스들이 공공 공간에서 추방되는 사태는 역으로 이들의 존재를 더욱 가시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2008년경부터 미야시타 공원의 나이키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적 차이를 담지한 자들의 공간적 실천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시부야 구청과 나이키사의 방침이 한 지역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된 이후, 개인과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이 한동안 이어졌던 것이다. 홈리스 지원자, 조형 예술가, 활동가, 음악가, 저널리스트, 용역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실업자, 학생, 문화연구가 등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반대 집회나 데모에 참가하여 미야시타 공원의 기업화를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부야 구청의 정책 결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공공장소가 일정 사기업을 위한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 그리고 홈리스 강제 퇴출의 부당함 등을 고발하였다. 특히 경찰을 동원한 시부야 구청의 행정집행이 예고되면 '시부야・야숙자의 생활과 거주권을 지켜내는 자유연합(澁谷・野宿者の生活と居住權をかちとる自由連合)'이나, '모두를 위한 미야시타 공원을 나이키화 계획으로부터 지키는 모임(みんなの宮下公園をナイキ計畵から守る會)', '미야시타 공원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宮下公園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를 중심으로 반대 집회가 전개되었다.

공공 공간을 향유하는 이들의 방식이 결코 정치적 조직화의 형식을 띠지 않는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히 이 공동체가 지구화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다양한 항의 운동들이 보이는

수행적이고 축제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지어 이들이 자신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힘에 대한 항의 운동을 전투적으로 벌일 때조차 그 시위는 연극적이고 거기에는 코스프레, 익살스러운 노래들, 슬로건, 온갖 쓰레기로 만든 다양한 악기들 등이 어우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페트병에 돌을 넣어 악기로 만들고, 버려진 깡통과 프라이팬 역시 타악기로 사용했으며, 티셔츠에 일그러지게 그려 넣은 나이키 로고도 항의의 메시지를 발신한다. 이렇게 폐품으로 무장한 신체의 움직임은 타악기 리듬과 함께 시부야 일대를 거대한 카니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소비와 노동 모두로부터 배제된 자들이 도시로 역류"하는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다.[33]

한편 일부 아티스트들은 홈리스들이 강제 퇴거 당한 이후 2010년 3월 하순경부터 미야시타 공원에 거주하며 공원의 재개발을 저지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망가진 우산이나 자전거가 공원 내에 오브제로 설치되고 주말에는 라이브 공연이나 영화 상연, 워크 숍 등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동영상, 트위터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CNN이나 BBC와 같은 주요 해외 미디어에 보도되었고, 오스트리아와 파리 등에서는 나이키에 대한 항의 행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34]



미야시타 공원의 나이키화에 반대!
http://irregularrhythmasylum.blogspot.kr/2008/08/blog-post_31.htm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감각과 활력을

33) 山本敦久, 「comtempory sports critique」, p. 83.
34) 白石草「市場化される公共空間 - ナイキに買収される澁谷・宮下公園」, 『世界』, 2011, p. 137.

지니고 있다. 일본의 미야시타 공원의 변화 과정들을 소개했던 신지영은 바로 이 점이 공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지닌 가장 빛나는 지점이라고 썼다.[35] 이 시위는 거리 축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노와 축제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시위가 축제적이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그 시위의 분위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시위의 조직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하고 특이한 주체들 사이에는 항상적인 대화가 존재하고 이 대화는 다성성(多聲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적인 구성을 통한 각 주체의 전반적인 풍부화가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들을 '다중'으로, 그들의 행위를 새로운 주체성과 새로운 언어를 생산하는 내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36]

다중은 어떤 하나의 중심적인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수많은 내적 차이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다중은 다양한 문화, 계급, 성, 노동 형식, 삶의 스타일, 세계관 등, 모든 특이한 차이를 가진 다양체(multiplicity)로 존재한다. 다중은, 하나의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온갖 유형들이 모여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대중과 비슷하다. 그러나 대중의 본질은 무차별성이며 모든 차이는 대중 속에서 사라짐에 반해, 다중 속에서는 차이들이 서로 다른 상태로 남아 있다. 결국 다중 개념이 제기하는 도전은 다양체가 내부적으로 다르게 남아 있으면서도 공동으로 소통하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

35) 신지영, 「'즐겁게' 싸우면서 태어나는 또 다른 마을」, 『인문학 통신/일본에서 마을 만들기』, 2010.04.16, www.greenbee.co.kr/blog/1021

36)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다중』, 2008, p. 260. 네그리는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 그리고 이 대화주의를 특징짓는 다성성과 카니벌 개념 등을 자신의 다중론에 적극 활용한다. 즉 대화적 내레이션과 다성적 구조, 축제적 관점 등은 하나의 정치적 조직화의 형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중의 특성, 시위자의 분노와 축제적 환희가 공존하는 다중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37] 쓰레기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고미니티(쓰레기를 뜻하는 일본어 '고미(ごみ)'와 공동체를 뜻하는 'community(コミュニティー)'의 합성어)', 그리고 고미니티의 '고미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도 역시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도쿄 길거리 한 복판에 차려지는 노상밥상 <246키친>은 시부야역 근처 철로 아래 246번지에서 열린다. 이 <246키친>은 받아 온 음식 재료, 남은 재료, 주워 온 재료 등을 모아 음식을 만들어 서로 대접한다. 이치무라 미사코 씨는 "쓰레기는 정말 훌륭하게 퍼블릭한 것이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죠. '이건 어쩔까? 나라면 이렇게 해!' 하면서 이상한 것을 만들거나 인간관계를 배워갑니다. 말하자면 고미니케이션이죠. 중요한 건 누구와 같이 노는가가 아닙니다. … 중요한 건 놀이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시간을 얼마나 공유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그 장소를 만들어 가는가 입니다."[38]라며 홈리스들의 공동체와 홈리스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이치무라 미사코 씨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동체는 바로 공공성(퍼블릭 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란 바로 이런 것, 즉 누구도 소유하고자 감히 시도하지 않는,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도 없는 것, 그리고 또한 모두의 것이 아닐까?

---

37) 장시복, 「'다중'은 대안세계화운동의 희망인가?」,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31, 한울, 2010, p. 111.

38) 신지영, 「아름다운 피고들의 고미니티에 초대합니다! 이주 노동자 민우 씨와 홈리스의 <246키친>」, 인문학 통신/일본에서 마을 만들기, 2009.10. 30, www.greenbee.co.kr/blog/808.

2) 공공성의 경계, 공공 공간의 안과 밖

미야시타 공원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경우 단속 기간에 홈리스들은 공공 공간에서 추방되고 이동한다. 그런데 공공 공간(공원, 역사)에서 추방된 이들은 흔히 또 다른 공공 공간(거리, 광장)으로 이동한다.

도쿄 고토구(江東區)에 위치한 다테가와 공원(竪川公園)에서는 홈리스들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공원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도 시절을 봉쇄했다. 그리고 이들을 공원 바깥으로 쫓아내고, 공원을 둘러싸는 펜스를 둘렀다. 쫓겨난 홈리스들은 그 펜스 옆에 또 다시 천막을 치고 거주하지만, 물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공원은 원래 물리적인 구조상 따로 펜스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홈리스들이 공원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두르고, 시민의 접근도 시간을 정해 제한하기 시작했다(<사진 7~8>).

공공성이란 공민을 위한 것이고, 공익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공개성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공공 공간에서 홈리스가 추방되는 이 사태들에서는 공공성 개념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리스들이 공공성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민성의 요소가 문제시 되고 있고, 인간 삶에 기본적인 공공재와 재화(물, 전기, 연료, 도로 등)의 사용을 제한 받는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위반되고 있으며,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성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결국 공공성의 경계에 대한 사유를 촉발한다. 즉 공공성의 안과 밖은 무슨 기준으로 나눠지며, 이 경계를 만드는 이는 누구인가? 공공 공간 내부로의 출입이 허가된 자와 공공 공간에서 추방되는 이는 누구인가?

과거 ‘도시의 공기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었다. 농노들이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탈피하여 중세 도시의 법적 실체들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함에 따라 이런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억압적인 농촌의 삶에서 떠나 도시로 온 이들 세대는 도시를 자신들의 피난처로 간주했다. ‘도시’와 ‘시민권’은 이러한 형성 과정에서 긴밀하게 서로 연계된다. 그러나 또한 도시는 소외와 하위계급, 포괄할 수 없는 ‘타자성’의 공간이자, 공해와 타락의 지형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city)’와 ‘시민(citizen)’은 어원적으로는 연계되어 있지만, 공적 상상력에서는 대립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39]는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은 우리의 분석 속에서 커다란 울림을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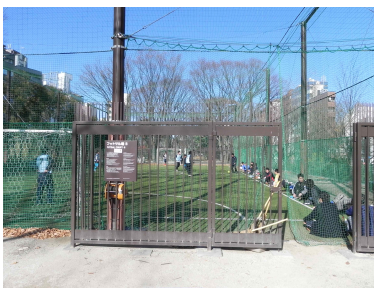


사진3. 미야시타 공원 내의 풋살구장. 여기도 역시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4. 새로 정비된 미야시타 공원의 안내 표지판. 개방 시간과 스케이트장, 암벽 등반장, 풋살구장 등의 시설이 유료임을 알리고 있다.

39) 데이비드 하비, 『희망의 공간』, 한울, pp. 217-218.



사진5. 요요기 공원 블루텐트 촌을 둘러싸고 있는 <입립금지> 푯말과 노끈 펜스.



사진6. 새로 정비된 미야시타 공원은 펜스가 둘러져 있다. 펜스로 두 개의 공공 공간(공원, 거리)이 나뉜다. 공원에서 추방된 홈리스 블루텐트(우)와 공원 내부의 풋살구장(좌). 이 경기장의 이용은 유료이고,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7. 다테가와 공원 출입 금지 표시. 시간을 정해둬 낮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8. 다테가와 공원에서 추방된 홈리스들의 항의의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 “구청장 야마자키 다카아키는 폭력・추방에 대한 책임을 져라. 행정대집행을 그만두라.”

법이란 게 참 우습더라고. 방범기간이면 경찰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 부랑아들을 잡아들였는데, 난 항상 같은 죄목이었지. ‘주거 부정, 직업 무, 우범지대 배회하며 무위도식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불안감 조성’이라고 말야. 한데, 즉결에서 어떤 날은 무죄고 어떤 날은 며칠씩 구류가 떨어지는 거야. 판사가 전날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오면 재

수 옴 붙은 거지.[40]

공공성(공공 공간)의 경계는 마치 위의 인용문에서 홈리스 화자가 이해하는 법의 경계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모호하다. <사진 6>의 오른쪽에 보이는 푸른색은 미야시타 공원 근처의 홈리스 블루텐트이다. 원래 미야시타 공원 내부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공원이 사유화 되면서 길거리로 쫓겨난 것이다 (사실 공원이 사유화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는 유사해졌을 것이다). 공원에서 길거리로의 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 양쪽은 모두 공공 공간이다. 한 쪽은 비록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이라 해도 공공 공간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사진 5>는 요요기 공원 내 블루텐트 촌의 입구 모습이다. 이 텐트촌을 두르고 있는 노끈 펜스와 <입립금지> 푯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즉 내부를 보호하는 펜스인가? 아니면 공공 공원에 심어 놓은 나무와 풀들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펜스이고, 결국 홈리스들이 이 금지의 명령을 위반하고 이 경계를 가로질러 내부로 침입한 사태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펜스인가? 아니면 이들의 삶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격리의 의미를 가지는가?

이 까다로운 문제들은 공공 공간(공원)에서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권리 - 도시권, 점유권, 시민권 -, 그리고 공공성과 시민성 간의 모순과 투쟁을 대단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소수자 공간' 그 자체가 진보적일 수는 없다. 이는 사회에서 주변으로 몰린 소수자들이 그 자체로 저항적일 수 없는 것(저항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소수자들의 공간이 사적 소유

40) 윤수종, 「넝마공동체의 성격과 그 변화」, 『진보평론』 15, 전남대5.18연구소, 2003, pp. 140-141.

권, 점유권 등 자본주의 사회의 예민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건드리고, 사적 소유권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 복판에서 빈 공간을 찾아 스며드는 것, 그래서 그 공간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주도하거나 혹은 막아 내는 것.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이다. 미야시타 공원의 나이키화를 반대한 한 예술가는 "도시에는 정비될 수 없는 장소, 비틀어진 공간, 즉 빈 공간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 빈 공간이기 때문에 노숙자의 판잣집이 들어설 수 있다. 빈 공간은 공공지와 사유지가 분화하기 이전과 같은 공간이다"[41]고 말하면서, 미야시타 공원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공간이라고 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분화하기 이전의 공간, 혹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푸코가 의미했던 대로의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a)'[42]이다.

푸코의 논의 속에는 세 가지의 공간이 등장한다. 첫째,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공간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이 공간 안에서 사회가 구성해 둔 정상적 규칙을 따라 자신의 일상을 영위한다. 둘째, 유토피아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꿈꾸는 비실재적 공간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구성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여타의 공간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헤테로토피아이다. 이는 현실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재적이지만, 정상적인 공간과는 구별된다. 또한 일상의 정상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와 특성을 공유하지만,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는 아니다. 요약하자면 헤테로토피아는 현

41) カール・カッセゴール, 「ノーマンズランド・自律ゾーン・公共空間 -「空き地」をどうやって守るかという問題と宮下公園について」, 『インパクション』 178, 2011, p. 38.

42) Michel Foucault, *Le corps utopique suivie de Les heterotopies*, Nouvelles Editions Lignes, 2009.

실적이면서 동시에 비정상적(신화적)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사회의 정상적인 일상 공간에 반하며 그것들을 문제시한다. 이곳에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머무르기도 한다. 중세의 경우 임신 기간 혹은 생리 기간 동안 여성들이 머물렀던 공간이나 고대의 성역 등이 헤테로토피아에 속한다. 그 후 점차 요양원, 고아원, 정신병원, 수용소, 감옥 등을 의미하게 된다. 그 외에도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는 놀이터에서부터 학교, 공장, 집장촌, 선박 등도 포함한다. 푸코에 따르면 모든 인간 사회는 헤테로토피아를 가지고 있으며, 헤테로토피아에 의해 유토피아가 동시적으로 규정되고 구성된다. 헤테로토피아는 한 사회의 구성 조건을 형성하는 일종의 '반 공간(contre-espace)'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홈리스 블루텐트 촌이 이런 헤테로토피아로 해석될 여지는 이치무라 미사코 씨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확인된다.

> 이 마을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원에서 25년이나 30년간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회구조가 홈리스를 생산해 왔기 때문이지요.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외국인, 장애인, 전과자, 성적 소수자, 괴짜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 따돌림 받는 사람들도 블루텐트 마을이라면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고서도 살 수 있어요. 대도시 도쿄 한복판에 이처럼 대안적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43]

공공 공간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즉 정상적인 공공성 개념을 가지고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 공공 공간은 헤테로토피아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공공성 개념은 정상적인 의미로 작동하지 않기

43) 이치무라 미사코 지음, 신지영 옮김, 『저… 여기에 있어요』, 올벼, 2009, p. 153.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공간에서는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 등 공공성 개념이 가지는 의미들은 퇴색 한다 (누가 공민이고, 누구를 위하는 것이 공익이며, 누구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말인가?). 공공 공간은 이렇게 해서 공공성의 균열을 가져온다. 이제 이 공공성의 의미는 전적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재구성 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 공간이 헤테로토피아의 성격을 담지하게 될 때, 이 공공 공간은 보편적으로 교환될 수 없거나 공식적인 제도와 상식적 규범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영역이 되며, 실종되었던 주체들이 다시 등장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수용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우리는 공공성의 위기(공공성의 붕괴, 공공성의 해체) 문제는 공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현대의 공공성 문제(좀 더 정확히는 공공성의 파괴)가 자본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공간에 대한 점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축적 과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나 노동 착취, 그리고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통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 축적을 위한 활동은 공간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공간은 늘 새롭게 재편된다. 새로운 공간이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고 있으며, 공간 환경 자체가 상품화되어 자본 축적의 주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 중 특히 공공 공간의 사유화, 공공 공간에서의 배제와 추방 등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공공성의 위기 문제는 분명 공간에 대한 접근으로 보충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공 공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현대의 공공성 개념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대의 공공성 개념을 뒷받침 하는 '정상 시민' 모델은 결과적으로 소수자적 가치들을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주체가 되는 시민은 '전형적인 정상 시민', '다수자'로, 여기서는 소수자의 욕망과 관련한 것들이 표출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다수 정상 시민의 기준에서) 소수자란 단지 소수의 이해 집단일 뿐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은 공공의 가치(즉 다수자의 가치, 정상성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로서의 공공성은 (부분적이나마) 집단의 폐쇄적인 공공성을 가정하기에 소수자를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즉 공공성에 포용이 아닌 배제의 기조가 작동하는 순간 공공성은 폐쇄적 집단성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세기 초의 파시즘이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집단 세력화로 돌파하고자 했던 병리적 의식이 민주주의 사회의 취약한 공적영역을 점거하면서 국가차원의 파괴력을 창출했던 것이다.[44]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근대의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공공성은 언제나 배제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의 권익이나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슈는 쉽게 배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살펴 본 홈리스 역시 이런 측면에서 공공성 논의 대상에서 쉽사리 배제되고 있고, 또한 공공 공간에서도 추방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논의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토 준이치는 이를 '욕구 해석의 정치'라고 말하는데, 이 정치는 사적인 것과 공적

44)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좌담회: 공공성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 17.

인 것의 경계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투쟁 가운데 하나이다. 곧 어떤 필요나 욕구를 공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가족 등에 의해 사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다. 간단히 말해 공공성은 바로 이러한 '욕구의 정의'를 둘러싼 투쟁의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다.[45] 현대 한국 사회의 촛불집회가 경직된 정부의 제도와 집권층의 권위주의적인 이념, 기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수직적이고 제한된 운동을 뛰어넘는 개별 시민들의 수평적 욕구를 통해 공공성의 재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범주화 할 수 없는 홈리스들의 소수자적 욕망이 근대의 다수자적 공공성을 재편 혹은 확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 보다 국민국가와 정상 사회 개념에 바탕을 둔 근대 사회질서 구조뿐만 아니라 근대의 가치와 상식, 양식에 관해서도 전면적인 반성을 필요로 한다. 복잡성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증대하는 현대의 '위험사회'에서는, 우리는 기존의 이념과 가치, 제도와 규범, 행위의 차원에서 구축된 공공성, 시민, 공공 공간 개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중(multitude)과 이질적인 공간(헤테로토피아), 공통적인 것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 한국공간환경학회지, 2009, pp. 42-90.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곽노완,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pp. 202-220.

45) 사이토 준이치 지음,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pp. 80-81.

김민진·김광현, 「현대의 공공성이 드러나는 집합적 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1, 대한건축학회, 2009, pp. 479-482.
김준호,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공간과 사회』 36,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p. 35-65.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옮김, 『희망의 공간』, 한울, 2009.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좌담회: 공공성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p. 3-43.
박경환,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8, pp. 297-310.
백완기, 윤수재 외 편저,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p. 20.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신정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 세계』 11, 참여연대, 2007, pp. 40-53.
신지영, 「아름다운 피고들의 고미니티에 초대합니다! 이주 노동자 민우 씨와 홈리스의 <246키친>」, 『인문학 통신/일본에서 마을 만들기』, www.greenbee.co.kr/blog/808, 2009.10.30
신지영, 「'즐겁게' 싸우면서 태어나는 또 다른 마을」, 『인문학 통신/일본에서 마을 만들기』, www.greenbee.co.kr/blog/1021, 2010.04.16.
안또니오 네그리 지음, 서창현 옮김, 『네그리의 제국 강의』, 갈무리, 2011.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조정환 · 정남영 옮김, 『다중』, 세종서적, 2008.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윌 킴리카, 장동진 외 옮김,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8.
윤수종, 「넝마공동체의 성격과 그 변화」, 『진보평론』 15, 전남대5.18연구소, 2003, pp. 136-162.

이승훈,「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성찰: 공공 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사회이론』37,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pp. 101-133.
이승훈,「계급과 공공성. 공공성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가능성과 한계」,『경제와 사회』88, 비판사회학회, 2010, pp. 12-34.
이치무라 미사코 지음, 신지영 옮김,『저… 여기에 있어요』, 올벼, 2009.
장시복,「'다중'은 대안세계화운동의 희망인가?」,『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31, 한울, 2010, pp. 205-237.
전홍규,「홈리스 커뮤니티의 공생형 거주에 관한 연구 - 시부야구 미야시타 공원의 당사자 참가형 조사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59, 2002, pp. 133-159.
조대엽,「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13-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2, pp. 3-62.
조철주,「탈근대적 계획환경 정합적 계획을 위한 근대계획의 재구성」,『도시 행정 학보』22-3,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pp. 91-111.
최병두,「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공간과 사회』37,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p. 5-38.
최협,『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カール・カッセゴール,「ノーマンズランド・自律ゾーン・公共空間 - 「空き地」をどうやって守るかという問題と宮下公園について」,『インパクション』178, 2011, pp. 35-43.
白石草,「市場化される公共空間 - ナイキに買収される澁谷・宮下公園」,『世界』, 2011, pp. 131-138.
「新・「裁判官」がおかしい!(第4回)ホームレスに「公園への住民登録」を認た超エリート裁判長」,『週刊新潮』53-10, 2008, pp.142-145.
戸叶トシ夫,「封鎖された公共圏 宮下公園2008-2010」,『インパクション』177, pp. 5-15.
山本敦久,「宮下公園ナイキ化計畫を問う」,『comtempory sports critique』22, 2010, pp. 79-85.

力道さん・山形さん・小川てつオ, 「ホームレスに歴史あり - 代々木公園テント村の歴史」,『現代思想』34-9, 2006, pp. 132-146.

Henri Lefebvre, *Le droit à la ville, 3e édition*, Economica, Anthropos, 2009.

Michel Foucault, *Le corps utopique* suivie de Les *heterotopies,* Nouvelles Editions Lignes, 2009.

Private Interventions and Transformations for Public Spaces

- Focusing on the Privatization of Tokyo Public Parks and the Spatial Practice of the Park Homeless -

Shin, Ji-Eun · Cho Jung-Min

This paper reconsiders public spaces through concepts such as 'right to the city,' 'right of residence,' and 'publicness.' The logic of publicness, which defines public spaces, is modelled on 'normal citizens.' Resultingly, it ignores the values of the minorities and also precludes the minorities from publicly expressing their needs. Such circumstances prove that publicness is but a mechanism for excluding and monitoring the minorities. The minorities have always been subjected to exclusion and expulsion on grounds that they are just a small number of interest group to 'typical normal citizens' or 'the majority regarded as normal,' and that the autonomy they are asserting can damage public values. Consequently, publicness as a substance partially assumes exclusive publicness of groups and is used as a basis for the exclusion of minorities.

In this pap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needs of the minority homeless demanding the reorganization or expansion of publicness of the modern majorities is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of Tokyo public parks. The spatial practice demonstrated in these parks calls for an overall reflection not only on the structure of modern social order,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s of nation-state and normal society, but also on modern values and common sense.

Key words: public spaces, public park, publicness, right to the city, right of residence, the minority homeless, multitude, communities

신지은
소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807-3
전화번호: 051-510-7441
전자우편: gracchus@pusan.ac.kr

조정민
소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807-5
전화번호: 051-510-7647
전자우편: jungjung21@pusan.ac.kr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